



재중국 한국MNC

투자 신뢰도 조사: 현황 및 과제



목차

목차	01
서베이 요약	02
서론	03
제1장: 중국 사업 개요 및 투자 환경 평가	05
중국 투자 형식 및 고려 사항	06
경영 환경 평가	08
제2장: 사업 경영 시 직면한 과제	10
거시적 차원의 과제	11
경영 차원의 과제	12
기업의 전략 방향 조정	17
제3장: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개요	18
산업 분포	19
직원 규모	20
경영 기간	21
매출 규모	22
사업 영역	23
응답자 직무	24
결론	25



서베이 요약



PwC는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투자 및 사업경영중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중국내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 현재 경영 및 미래 사업계획상 직면한 도전, 미래 계획 및 고려사항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습니다.

총 79개의 한국 기업이 본 서베이에 참여했으며, 주로 중소기업이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사업을 영위중이고 중국시장 진출한지 10년 이상 사업한 기업은 70% 이상입니다.

주요 서베이 결과:

설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가장 선호하는 투자 형태는 독자기업(62%), 중국 투자 시 다양한 고려사항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국내 수요에 따른 거대한 시장 잠재력(90%)이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금융 및 신용 환경, 대우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들의 평가는 크게 달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약 68%는 향후 3~5년 동안 중국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시적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시장 둔화(66%)는 2위로 나왔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직원 채용 및 유지, 디지털화, ESG 등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그중 높은 비용 문제는 중국 내 한국기업이 현지 인재를 유지하고 채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61%

는 우수한 역량의 직원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답했고

54%

는 대부분의 입사 지원자가 예상보다 높은 급여를 요구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직면한 디지털 과제로는 주로:

42%

글로벌 정책 /
애플리케이션
과의 연계

34%

현지 디지털
인프라의
부적절함

33%

현지 정책
지원 부족

기업이 직면한 ESG 과제는 주로:



61%

ESG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준수 기준 부족

51%

ESG 전문가 부족, 내부 직원의
지식 부족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및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투자 및 규모확대, 투자축소 또는 중국 시장 철수, 기존 사업규모를 유지할 포함한 세 가지 방향을 각각 선택해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의사 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차별화를 나타냈습니다.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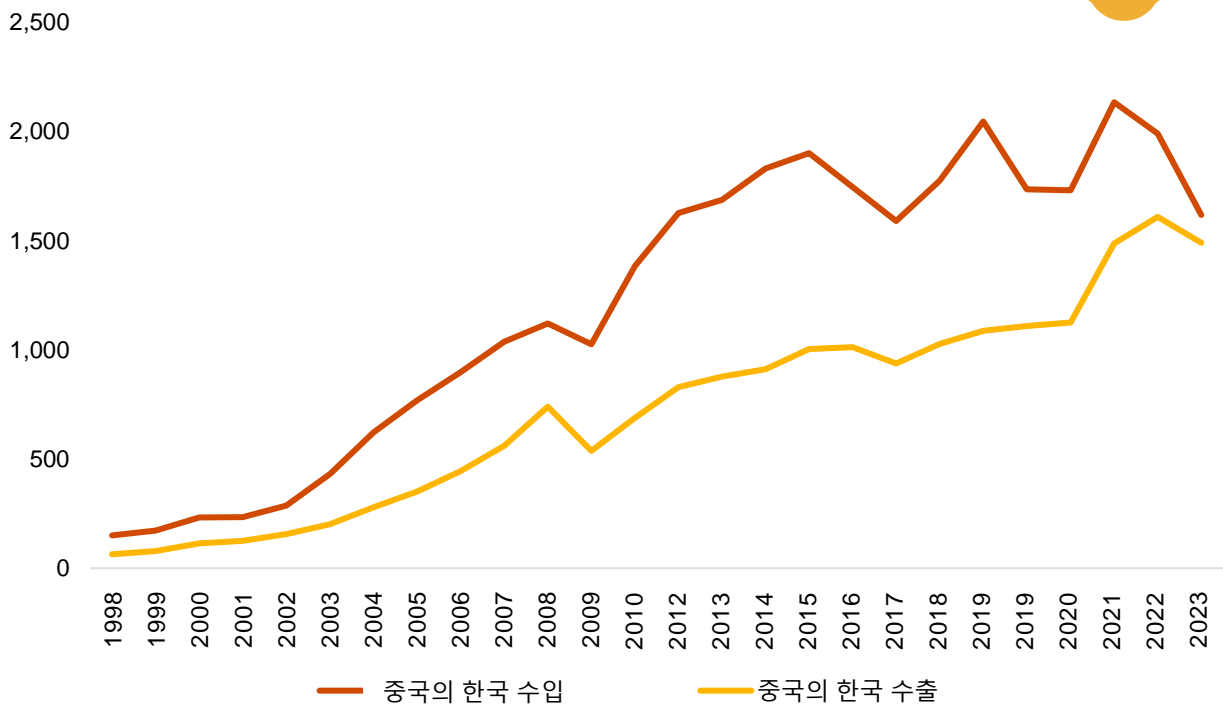
1992년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에 양국의 우호 협조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해관총서(GAC)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한국간 상품 수출입 교역액은 총 3,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1,490억

달러이며, 중국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7% 감소한 1,618억 달러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실제 누적투자액은 총 1013억 3천만 달러입니다.

차트 1: 한국-중국 간 수출입 무역 금액 (단위: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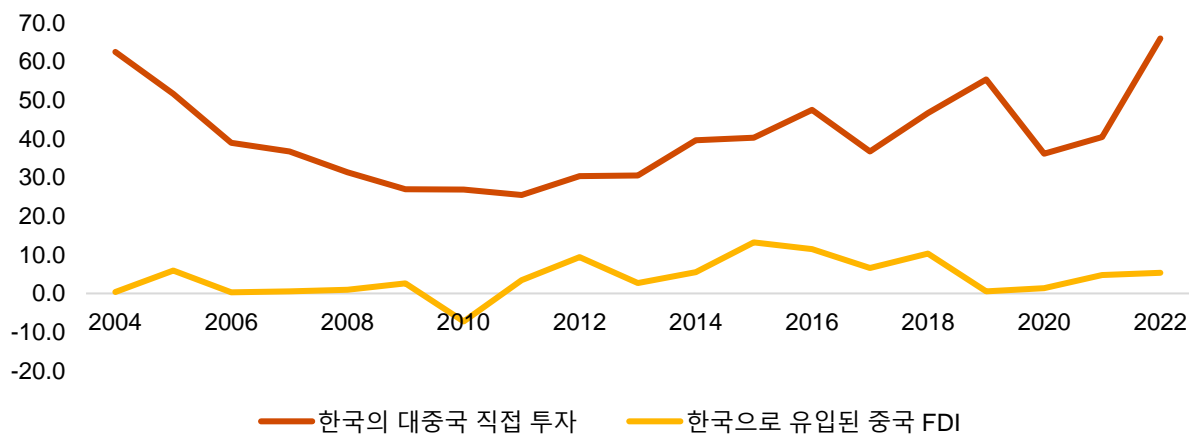


데이터 출처: Wind; 외교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대중국 직접 투자액은 66억 달러, 중국 대한국 직접 투자액은 5억 4,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공개정보에 따르면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와 같은 한국 MNC 기업이 중국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까지 삼성 반도체 시안의 플래시 메모리 칩 생산능력은 전 세계 칩 생산 능력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1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산 시 성 에 서 가 장 큰 외 자 투 자 프로젝트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최대 해외 생산 거점으로, 2022년에 SK하이닉스(중국) DRAM 메모리 공급량은 SK하이닉스 전체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누적 투자액은 203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의 새로운 전력 배터리 프로젝트에 5억 3,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4년 5월에 한국의 PSK 중국 본사도 시안에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한국의 GigaLane가 우시시와 우시 첨단기술구(Wuxi Hi-Tech Zone)에 중국본사를 설립했으며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에칭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기지를 설립하였습니다. 공개정보를 종합해보면 반도체, 신에너지, 지능형 제조, 바이오 의약부문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인기 산업입니다.

차트 2: 한국-중국 간 직접투자 (단위:억 달러)



데이터 출처: Wind



제1장

중국 사업 개요 및 투자 환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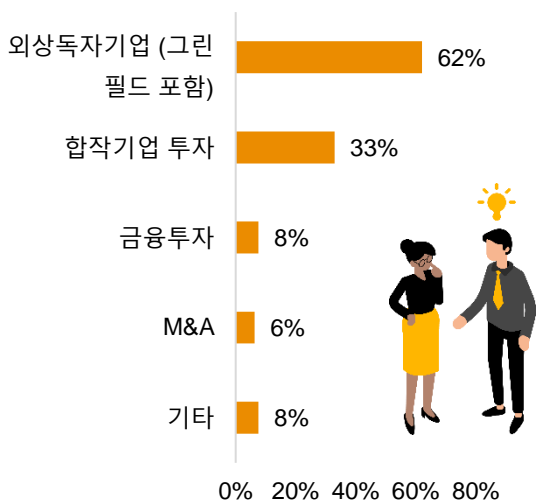
중국 투자 형식 및 고려 사항

설문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은 가장 선호하는 투자 형태는 독자기업이며, 한국MNC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다양한 고려 사항 있지만, 국내 수요에 따른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혔다.

투자 형식

응답 기업의 중국 내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은 외상독자기업(그린 필드 포함)로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합작기업 투자는 33%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재무투자(8%)와 인수합병(6%)도 활용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방식은 더욱 집중되어 있으며, 89%의 기업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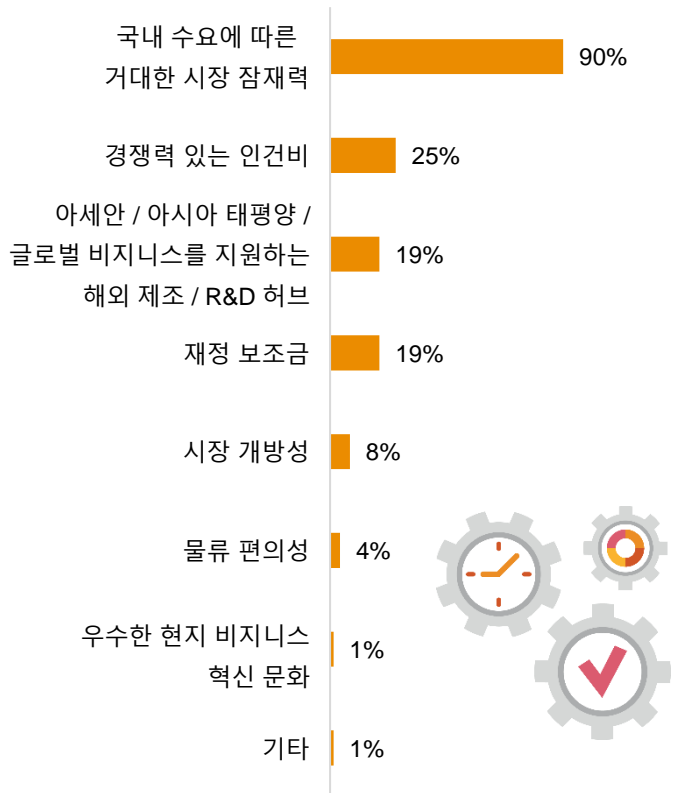
차트 3: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투자 방식



투자 고려사항

응답 기업의 90%가 중국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국내 수요에 따른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었으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25%), 아세안 / 아시아 태평양 /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해외 제조 / R&D 허브(19%), 재정 보조금(19%)도 응답 기업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51%의 설문에 참여한 기업은 2개 이상의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중국 투자시 고려사항이 상당히 종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4: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중국 사업의 주요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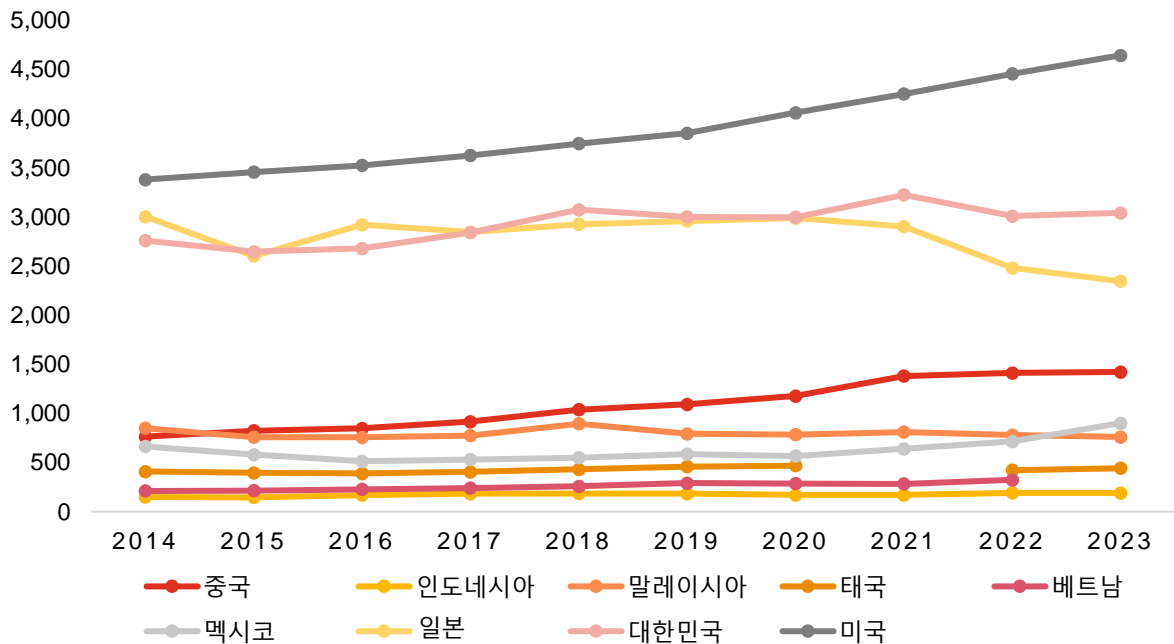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소비재 총판매액은 47조 1,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노동력의 소득 수준 향상은 소비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촉진했으며, 중국경제연구센터(CEIC)에 따르면 중국 노동력의 월 평균 소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차트 5: 일부 국가의 월 평균 수입(달러)



데이터 출처: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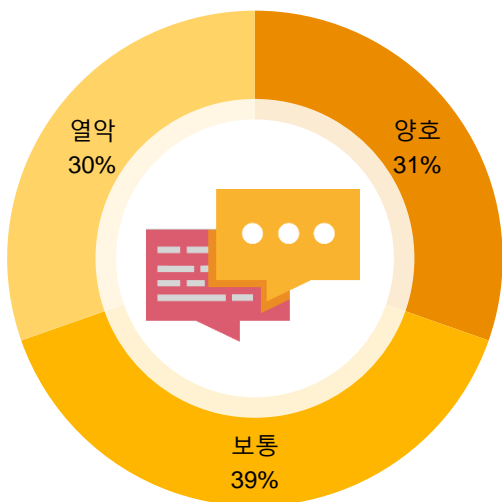
경영 환경 평가

중국 전반적인 시장 환경,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금융 및 신용 환경,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 기업들의 평가는 크게 달랐다.

전반적인 시장 환경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31%는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양호, 39%는 보통, 30%는 열악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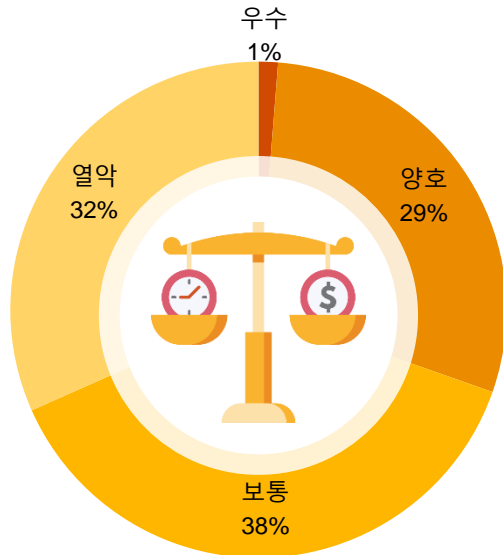
차트 6: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설문 참여 기업 평가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중인 지역 정책의 안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평가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0%는 우수하거나 양호하다고 답했지만, 38%는 보통, 32%는 열악이라도 평가했다.

차트 7: 사업장 소재지의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설문 참여 기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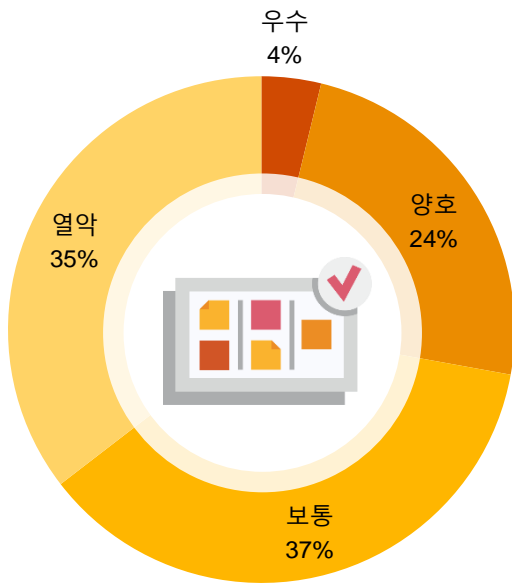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사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23년 국무원은 <외국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중국내 외상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더욱 안정화했다. 2024년 2월 국무원 총판공실은 <대외개방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외상 투자를 유치해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실행 계획>(이하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시장 진입 확대, 정책강화,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혁신 요소의 원활한 유입, 국내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 24개 조치를 제시했다.

중국은 외상 투자를 유치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지속해 왔다. 2013년 중국 최초의 외상투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190개 조항이 있었지만, 최근 몇년동안 리스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4년 9월 8일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진입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4 버전)을 발표했으며 국가 외자 진입 제한 리스트는 29개로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부문 제한은 완전히 해제됐다.

금융 및 신용 환경

설문에 참여한 기업중 약 30%는 해당 지역의 금융 및 신용 환경이 우수(4%) 또는 양호(24%)라고 답했으며, 37%는 보통, 35%는 열악이라고 답했다.

차트 8: 사업장 소재지의 금융 및 신용 환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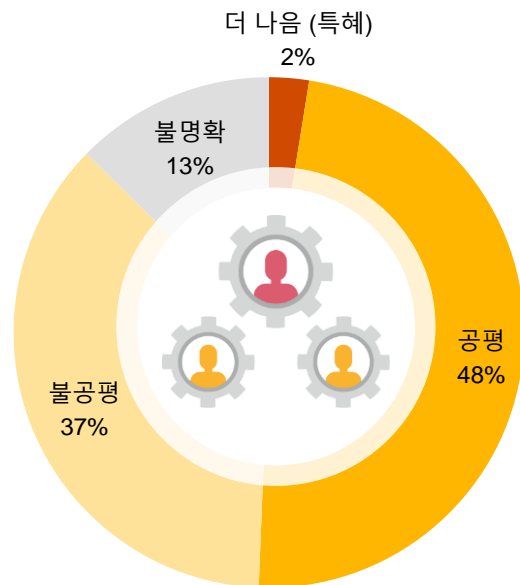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을 노력해 왔으며, 실행 계획은 금융기관이 시장화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외자 프로젝트에 고품질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대우 공정성

중국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8%는 공평, 2%는 더 나옴, 37%는 더 나쁘다고 답했다.

차트 9: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중국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현재 중국은 정부조달 및 입찰, 표준 설정 참여, 지원 정책 혜택,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입찰법>과 <정부 조달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유권 기업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제한과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무부는 또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포함하는 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

사업 경영 시 직면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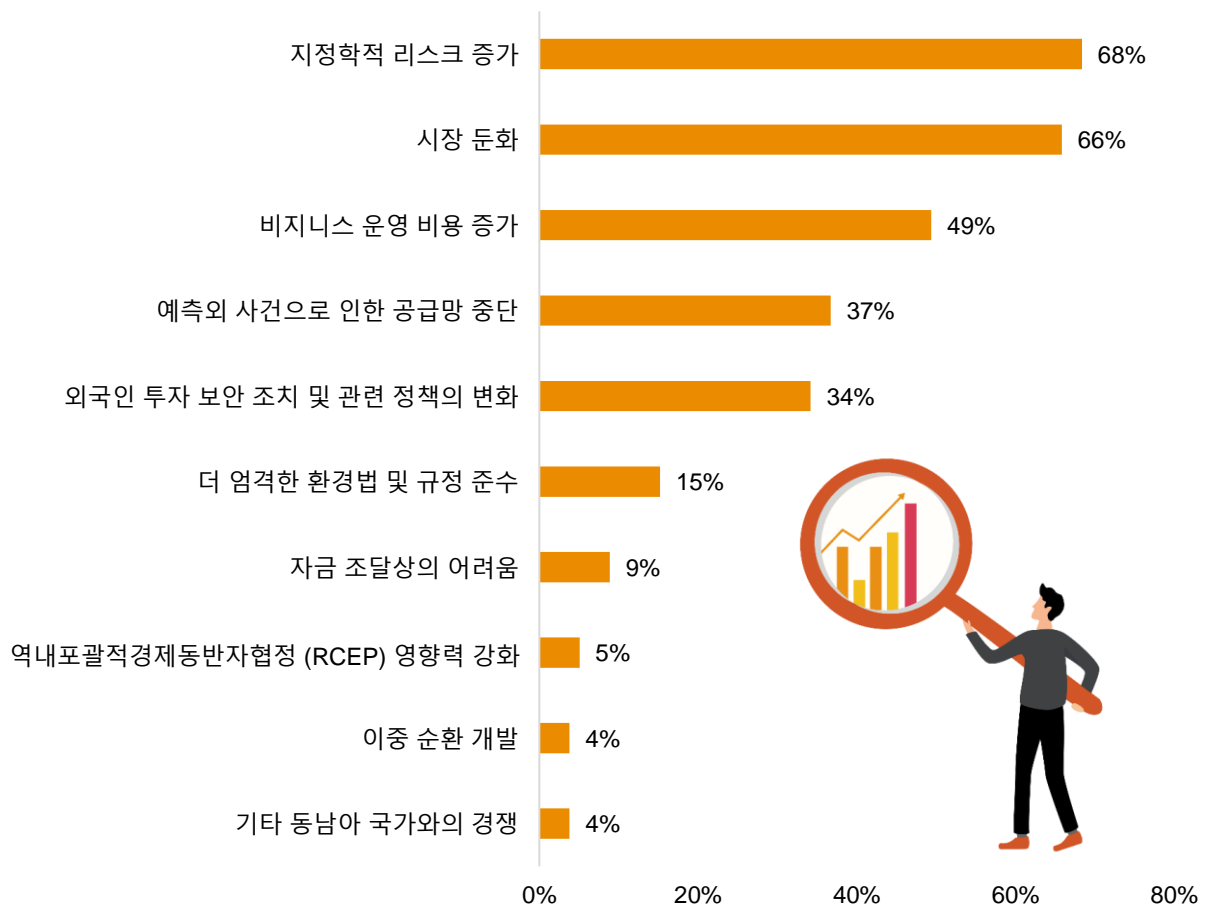


거시적 차원의 과제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에 68%는 향후 3~5년 동안 중국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시적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으며, 시장 둔화(66%)가 2위를 차지했다. 비즈니스 운영 비용 증가(49%), 예측 외 사건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37%), 외국인 투자 보안 조치 및 관련 정책 변화(34%)도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이 많이 선택한 거시적 요인이었다.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 회사인 PRS그룹이 발표한 2021년 9월 세계 100개 경제국의 정치리스크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64위, 한국은 24위로 나왔으며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북관계 긴장 및 중미 무역 경쟁의 복잡성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업경영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이고 있다.

차트 10: 향후 3~5년 동안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시적 요인



경영 차원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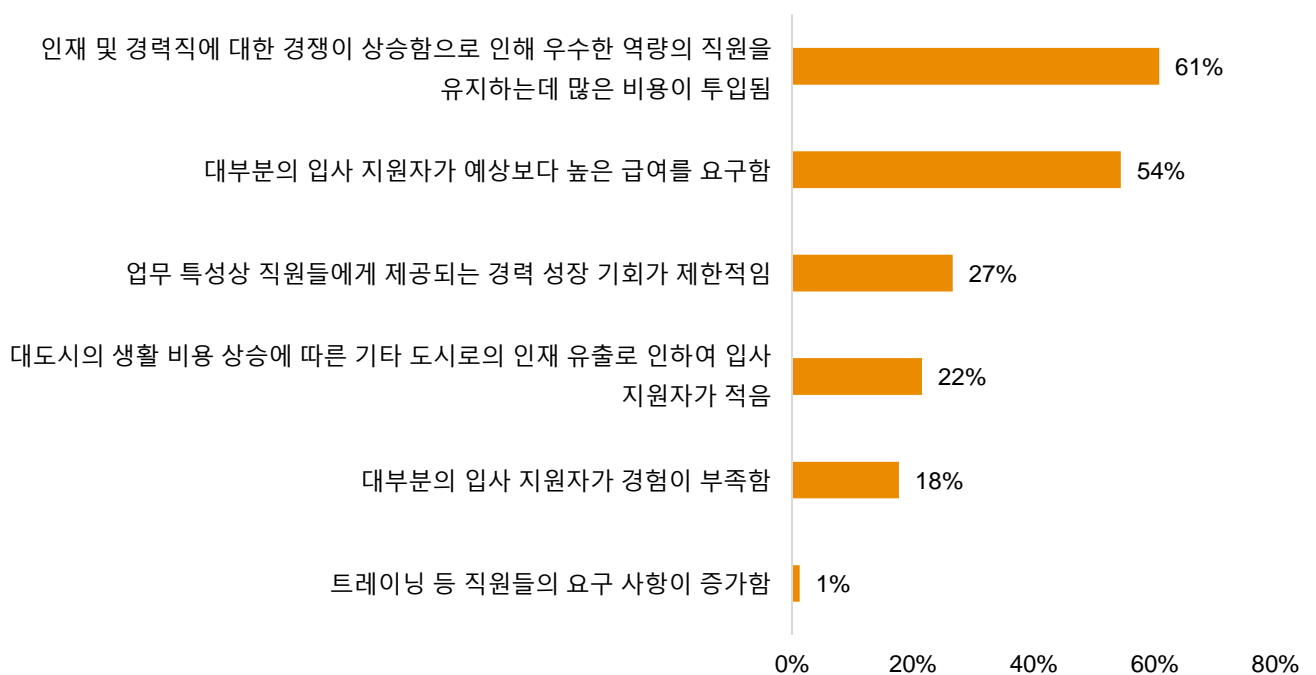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원 채용 및 유지, 디지털화, ESG 등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직원 채용 및 유지

높은 비용 문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현지 인재를 유지 및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61%가 우수한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으며, 54%는 대부분의 입사 지원자가 예상보다 높은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 시장은 고령화 심화,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 높은 고용

비용 등 문제로 인해 외자 기업의 고용 기회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발전 기회, 생활비용, 업무 경험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지 인력 고용 시 고려하는 요소들이었다.

차트 11: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현지 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설문에 참여한 기업은 중국의 생활비 상승(61%)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57%)가 중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48%)와 중국의 높은 소득세(38%)도 기업의 외국 직원 채용 및 유지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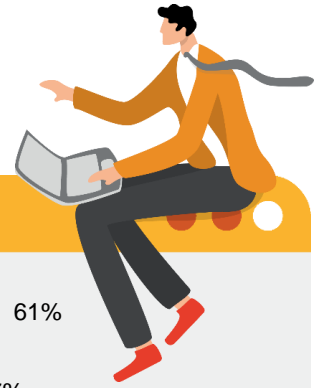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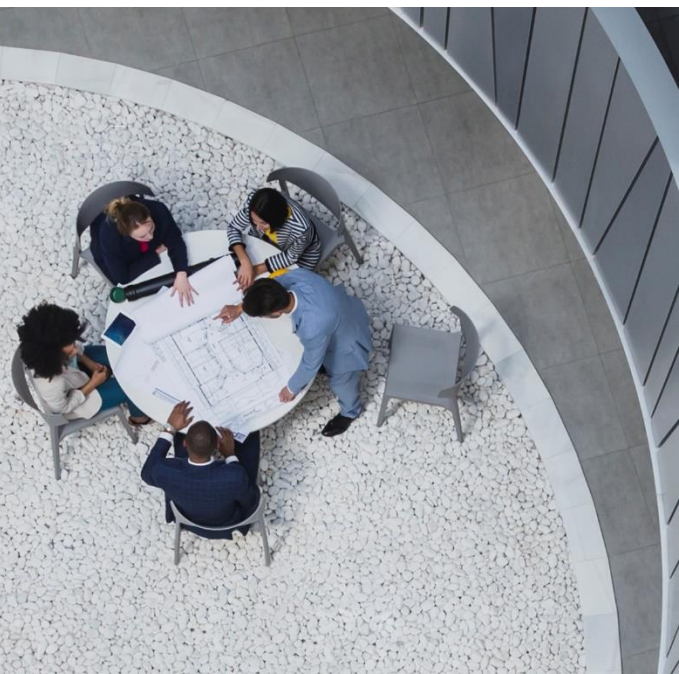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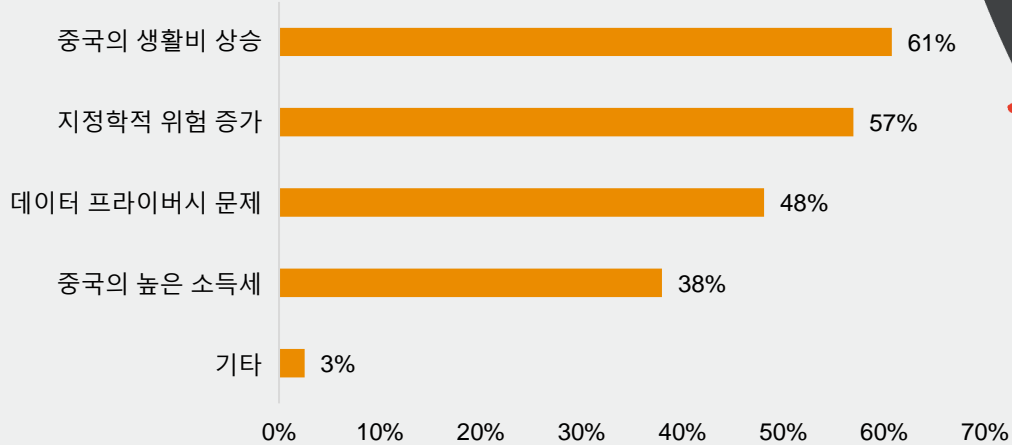


차트 12: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중국 내 해외 직원 고용 및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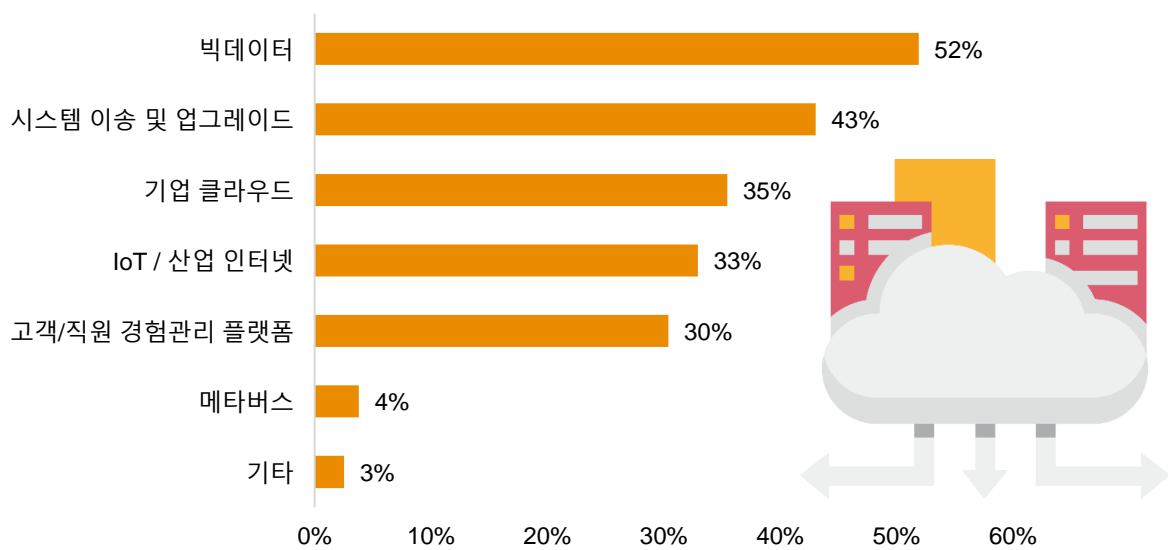


디지털 구축

디지털화는 기업이 비즈니스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 이상(52%)이 빅데이터를 첫 번째 중점분야로 선택했고, 43%는 시스템 이송

및 업그레이드를 선택했으며, 기업 클라우드(35%), IoT/산업 인터넷(33%), 직원 경험 관리 플랫폼(30%)도 일부 설문에 참여한 기업에서 사업 자동화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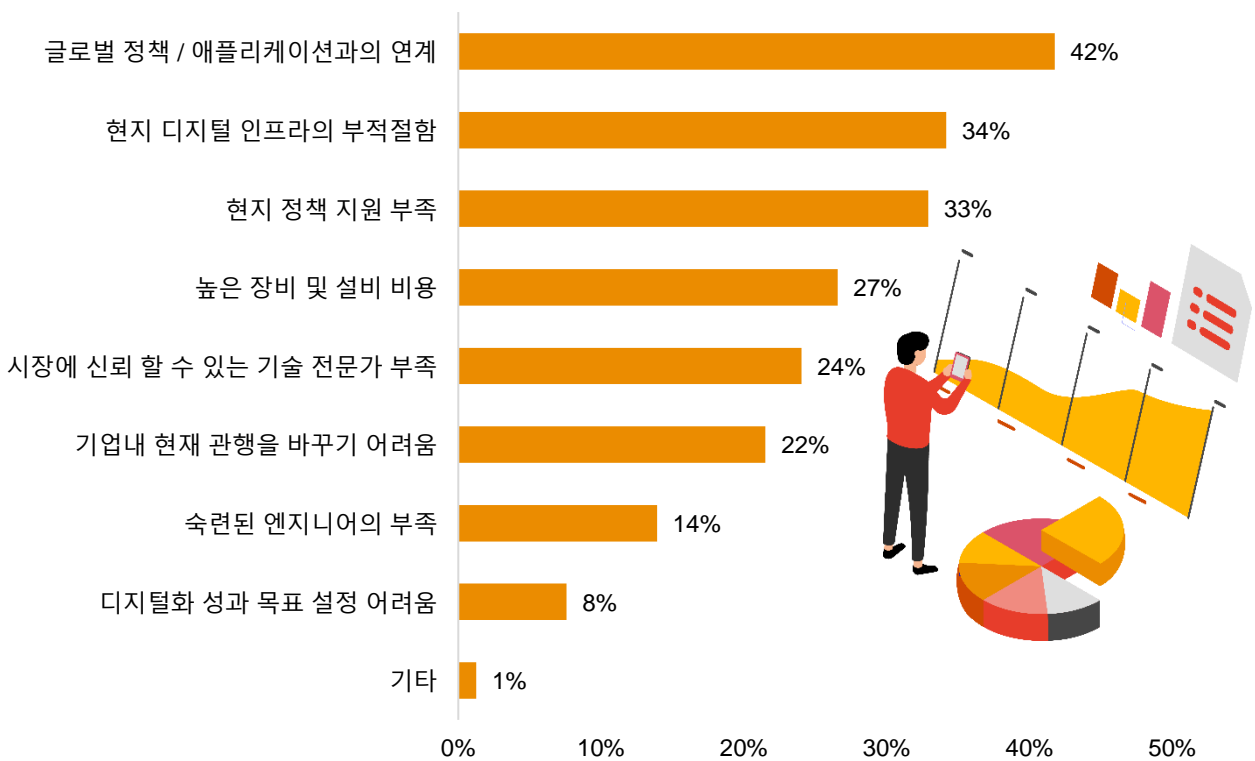
차트 13: 기업의 디지털 혁신 중점 분야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직면한 주요 디지털 과제는 주로 글로벌 정책 /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 (42%), 현지 디지털 인프라의 부적절함(34%), 현지 정책 지원 부족(33%) 등이었다. 또한 높은 장비 및 설비 비용(27%), 시장에 신뢰 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 부족(24%), 기업내 현재 관행을 바꾸기 어려움(22%)도 기업이 직면한 과제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실행 계획은 외상 투자 기업과 본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도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으며, 앞으로 외상 투자 기업의 R&D, 생산 및 영업 등 분야에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 14: 중국내 사업에서 기업이 직면한 주요 디지털 과제



ESG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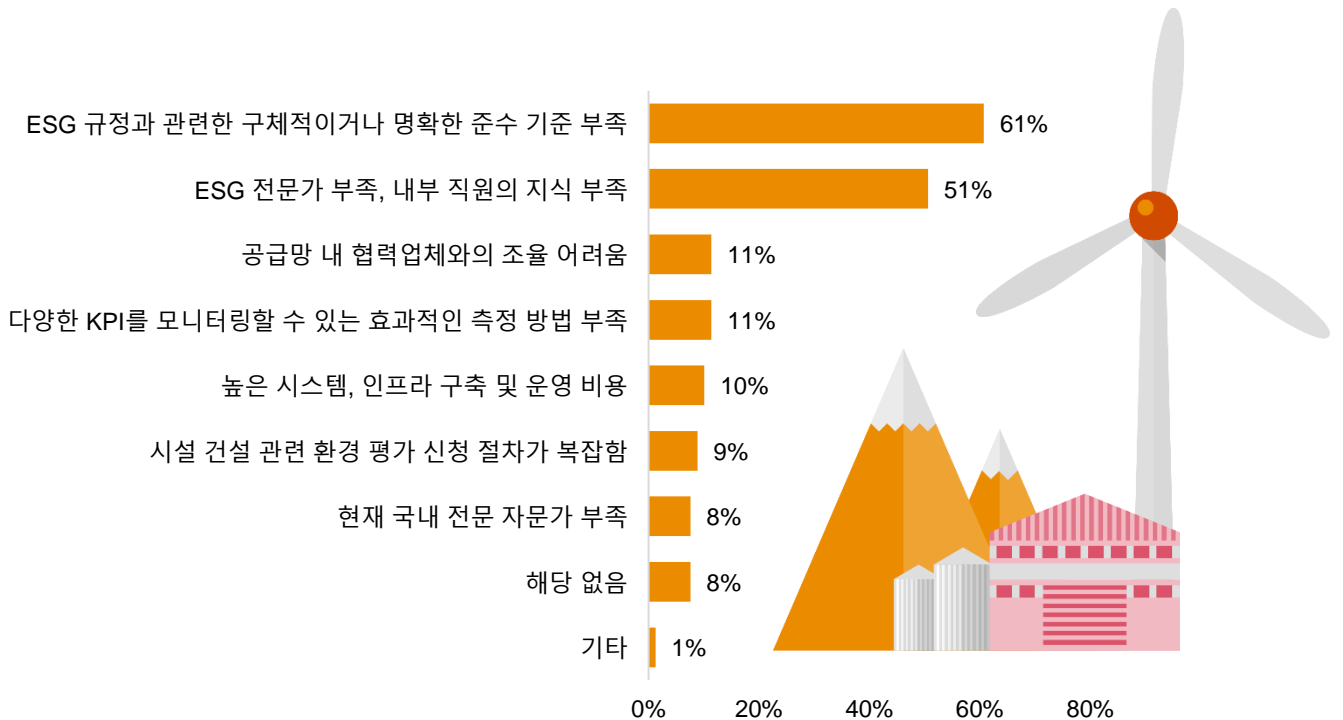
ESG 이념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전 세계 기업의 공통된 인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61%는 중국에서 사업경영 시 ESG 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준수 기준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51%는 ESG 전문가 부족과 내부 직원들의 지식 부족이라고 답했고 2위로 꼽았다.

2024년 5월, 중국 표준화협회(CAS)는 여러 기관과 함께 기업이 명확한 ESG 공시 기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정보공시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가이드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ESG 정보 공개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공시 내용, 공시 절차 및 책임 감독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ESG 이념에 내재된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고,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ESG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부터 출발하여, 지역 산업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ESG 체계에 통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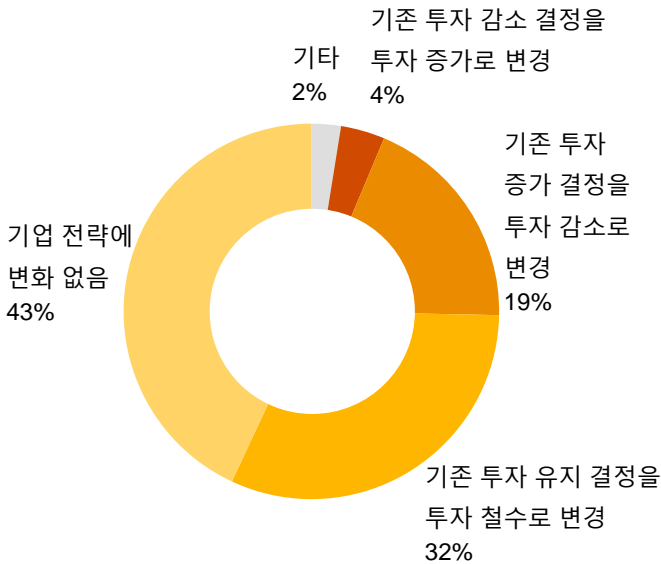
차트 15: 중국에서 사업하는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이 직면한 ESG 과제



기업의 전략 방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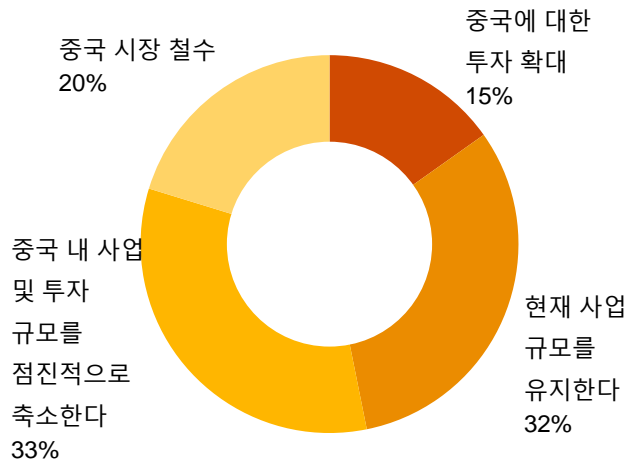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43%는 기업 전략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4%는 기존 투자 감소 결정을 투자 증가로 변경, 19%는 기존 투자 증가 결정을 투자 감소로 변경, 32%는 기존 투자 유지 결정을 투자 철회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차트 16: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향후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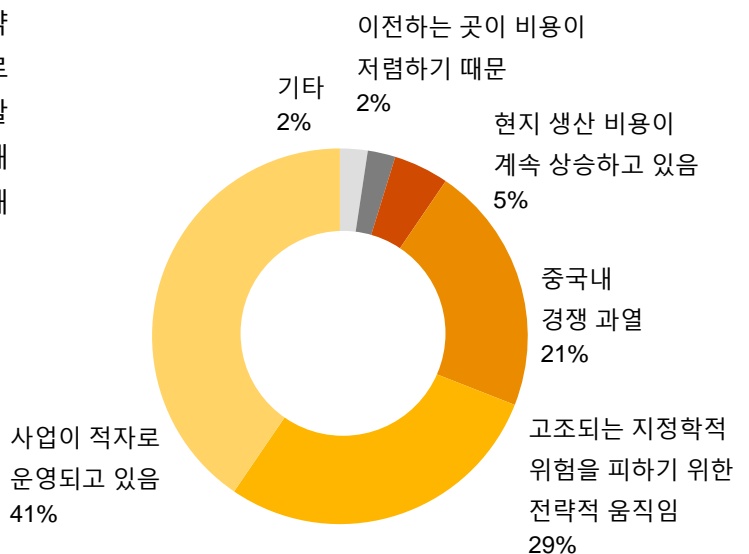
중국향 투자계획을 조정하기로 답한 기업 중 약 33%는 중국 내 사업 및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20%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5%는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 계획이며, 32%는 현재 사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차트 17: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기존 투자 및 운영 조정 계획



사업을 축소하고 중국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업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41%),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29%), 중국 경쟁 과열(21%)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18: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 또는 철수 주요 사유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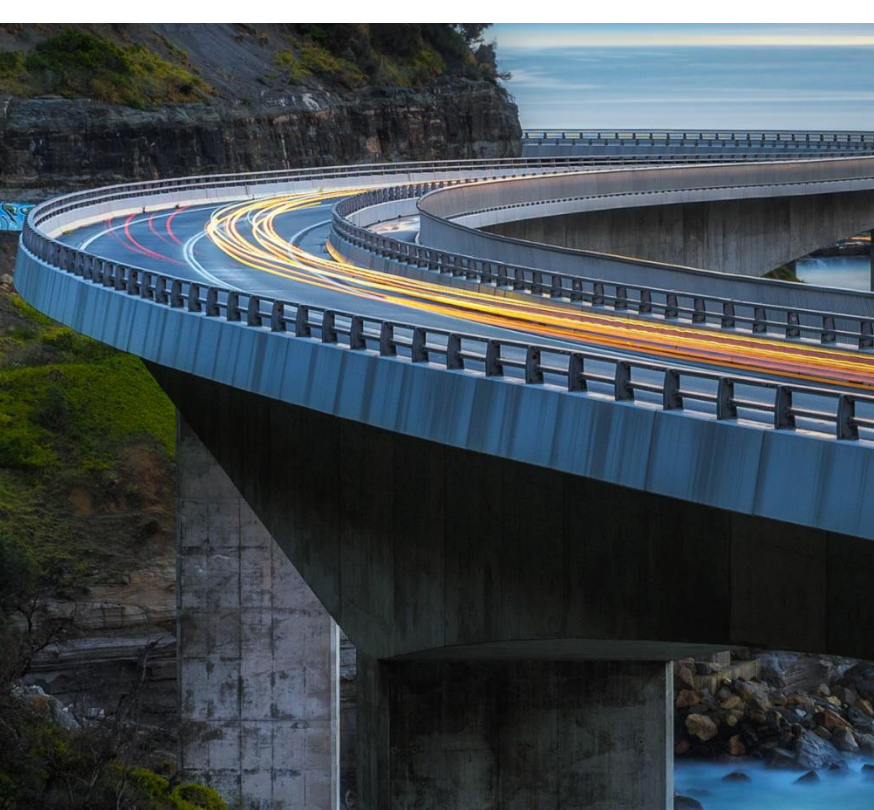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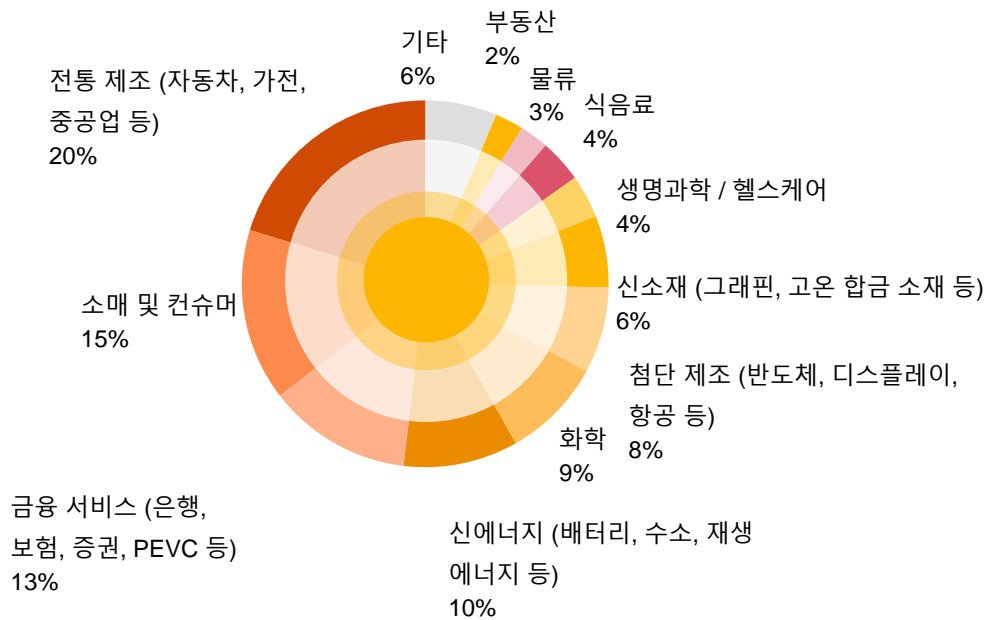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개요

산업 분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의 설문 참여 기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전통 제조업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업종이며, 첨단 제조업의 비율은 8%이다. 또한

소매 및 컨슈머(15%), 금융 서비스(13%), 신에너지(10%), 화학(9%), 신소재(6%),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4%), 식음료(4%), 물류(3%), 부동산(2%)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다.

차트 19: 설문 참여 기업 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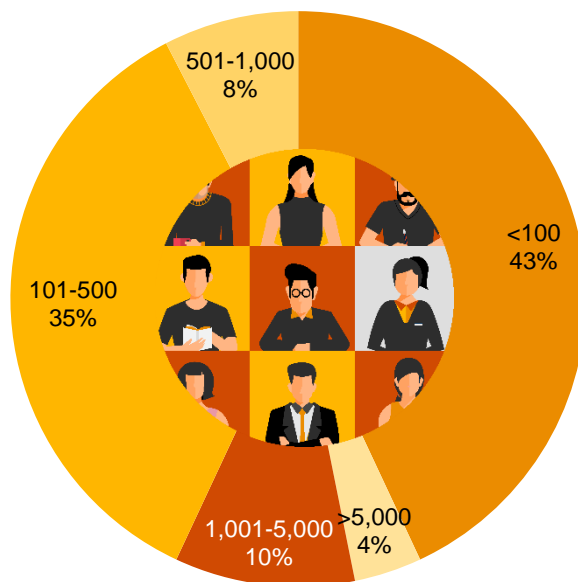


직원규모

설문에 참여한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약 80%는 직원수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었다. 그 중 43%는 100명 미만, 35%는 101~500명이었으며, 또한 8%는 501~1,000명, 10%는 1,001~5,000명, 4%는 5,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화학, 신소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물류, 부동산 분야의 응답 기업은 모두 직원수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었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거의 90%가 500명 미만이지만 5,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도 있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응답 기업의 사업 유형 분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차트 20: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중국에서 고용한 정규직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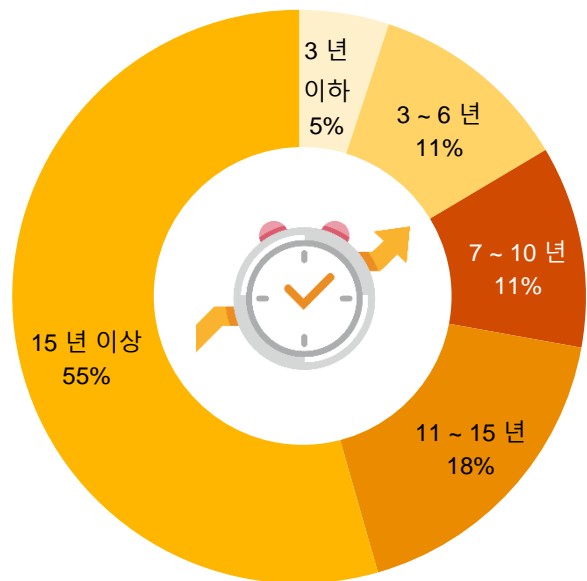


경영 기간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 이상(55%)은 중국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경영했으며, 11~15년 사업을 경영한 기업은 18%, 7~10년과 3~6년 경영한 기업이 각각 11%였다. 지난 3년 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한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비율은 5%로 가장 낮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 제조업,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 금융 서비스, 소매 및 컨슈머, 식음료 분야의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일찍 진출했으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

차트 21: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경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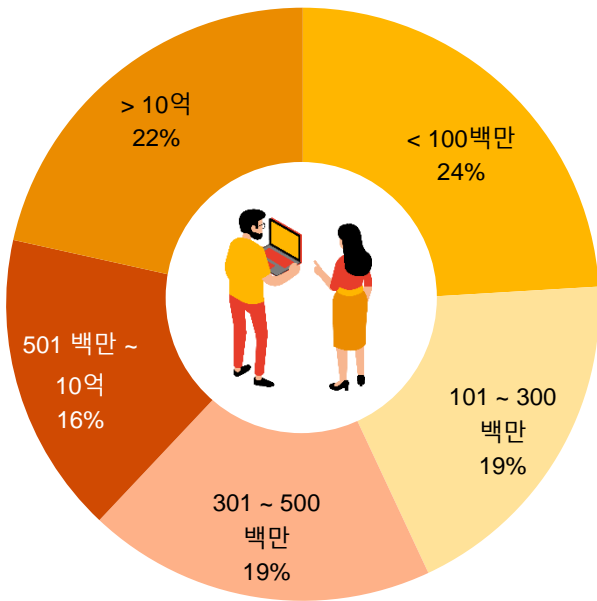


매출규모

매출규모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22%는 중국에서 10억 위안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고 답했으며, 16%는 5억~10억 위안, 19%는 3억~5억 위안, 19%는 1억~3억 위안, 24%는 연매출이 1억 위안 미만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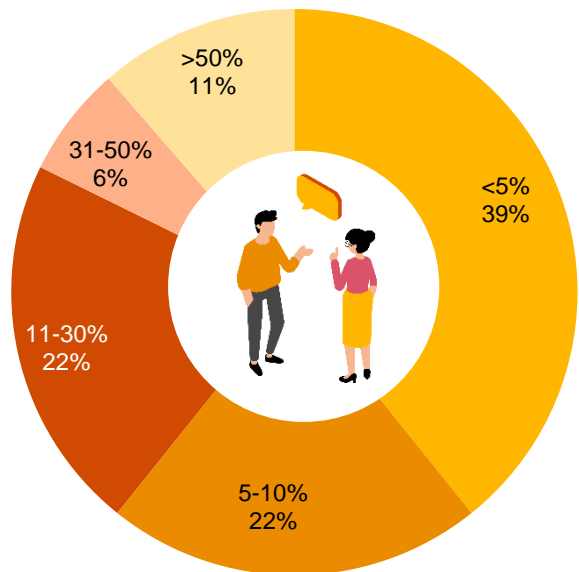
차트 22: 중국 내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연매출 규모



중국시장 매출 비율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39%가 중국매출은 글로벌 매출의 5% 미만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출이 5~10%와 11~30% 범위인 기업은 모두 22%를 차지했으며 6%는 중국 매출이 31~50%이다. 11%는 중국 매출이 글로벌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주로 전통적인 제조업, 화학, 금융 서비스, 식음료 산업에 속해 있었다.

차트 23: 글로벌 매출 대비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매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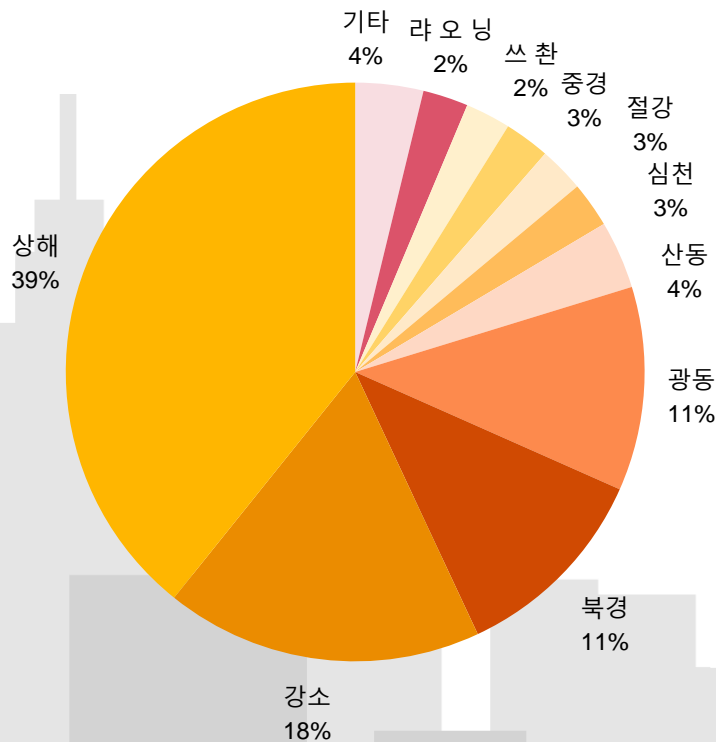
사업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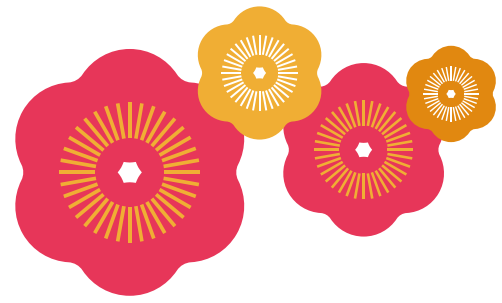
본사 소재지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본사는 주로 상하이, 베이징, 동부 및 남부 연해 지역에 설립되었다. 39%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 다음 순서대로 장쑤성(18%), 베이징(11%), 광둥성(11%, 선전 제외), 산둥성(4%), 선전(3%), 절강성(3%)이었다.

서부 지역에서는 충칭(3%), 쓰촨성(2%), 산시성(1%)에 주로 본사를 설립했다고 응답했다. 동북 지역에서는 주로 랴오닝성(2%)에 설립했으며, 그 외 한 기업은 장쑤성과 후베이성에 이중 본사를 설립했다.

차트 24: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중국 본사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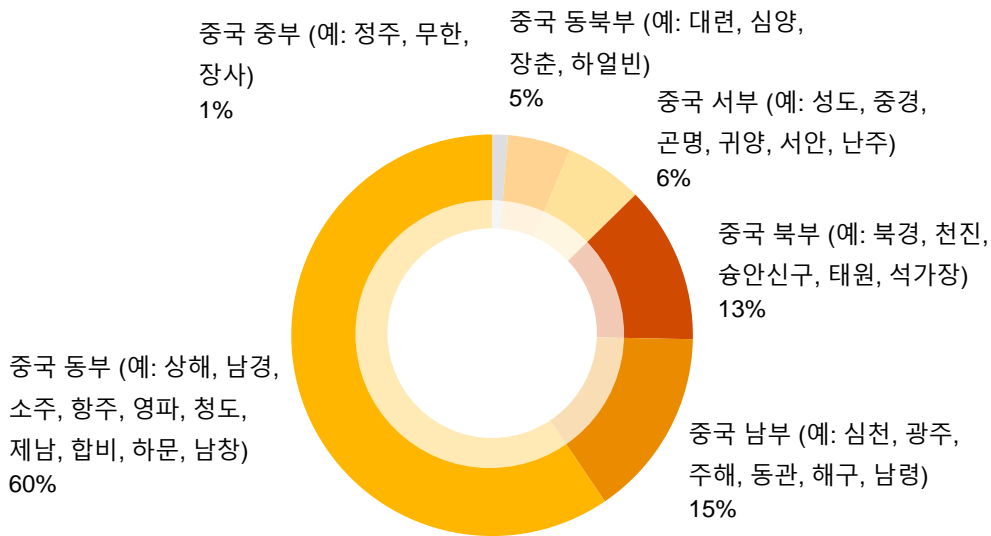


업무 분포 지역

화동지역은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이 주로 투자한 지역이다. 60%는 화동지역에 본사와 자회사를 설립했다. 화남과 화북지역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본사와 자회사를 설립한 비율이 각각 15%와 13%이다. 이어서 서부(6%), 동북(5%), 화중(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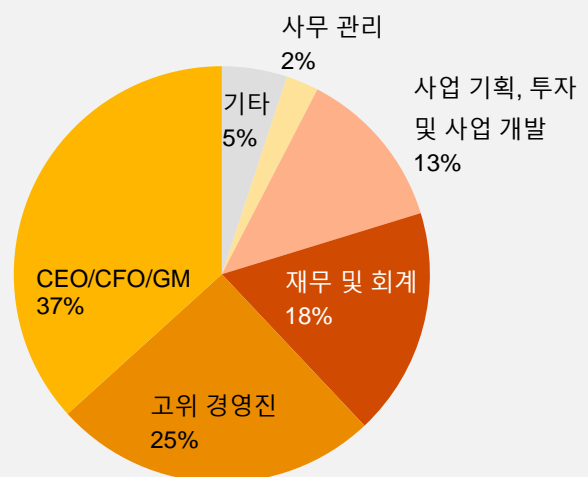
차트 25: 중국 내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본사 및 자회사의 주요 분포 지역



응답자 직무

응답자의 37%는 기업 CEO/CFO/ GM, 25%는 임원, 18%는 재무 및 회계, 13%는 기업기획, 투자 및 사업 개발, 2%는 사무 관리이며, 기업 기술자, 연구 개발 직원, 변호사, 고문 등은 전체의 5%를 차지했다.

차트 26: 응답자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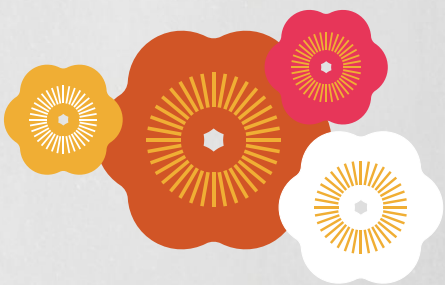


결론

2024년 상반기 중국 국내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하며 양호한 모멘텀을 유지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7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실제 외자 투자금액은 5,394억 7,000만 위안으로 여전히 지난 1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약 32,000개의 외자 기업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조치를 더욱 축소했으며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한 산업리스트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 대한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의 항목수를 계속 늘리며, 이는 MNC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참여자로, 중국 시장 발전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의 깊은 통합을 촉진해 왔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발전 지원 및 신규 한국 기업 투자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한국 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환경 최적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등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혁신 중심의 현지화 전략과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 경제 건설에 더 잘 적응하고 통합하여 중국 경제와의 공동 성장과 상호 이익을 실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Acknowledgement

Linda Cai

Inbound Outbound Leader
Head of China Corporate Finance
PwC China

Steven Shum

Associate Director
Inbound Outbound Service
PwC China

Judy Wang

Manager
Clients & Markets
PwC China

Shan Liang

Senior Associate
Clients & Markets
PwC China

Ray Cheng

Senior Associate
Firm Corporate Service
PwC China

Jennifer Han(한승희 전무)

M&A Advisory Service Lead Partner
Korea China Cross-border M&A Advisory Leader
PwC China

Zhoudong ShangGuan

Associate Director
Clients & Markets
PwC China

Jelly Wang

Senior Associate
Clients & Markets
PwC China

Iris Hao

Senior Associate
Korea China Cross-border M&A Advisory
PwC China

Contact us

Linda Cai

Inbound Outbound Leader
PwC China
Email:linda.cai@cn.pwc.com

Steven Shum

Associate Director
Inbound Outbound Service, PwC China
Email:steven.shum@cn.pwc.com

Jennifer Han(한승희 전무)

M&A Advisory Service Lead Partner
PwC China
Email:Jennifer.s.han@cn.pwc.com

Iris Hao

Senior Associate
M&A Advisory Service, PwC China
Email:iris.l.hao@cn.pwc.com



www.pwccn.com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2024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